

자기개념 위협이 편집성향자의 주의 및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이 명 원[†] 김 중 술 신 민 섭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편집성향자들의 자기개념을 위협했을 때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의 편향과 귀인 편향 및 외현적 자기개념을 검증하기 위해 편집성향 집단, 우울성향 집단, 정상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은 편집성향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관련 단어에 더 주의편향을 보이며, 과제에서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고, 자기기술 평정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정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편집성향자들이 자기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때는 자기와 관련된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며, 부정적 결과들을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고, 걸으로는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한다는 기본 가설이 지지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지적 특성들은 자기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는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가설도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편집증, 자기개념, 자기관련 주의편향, 외부귀인 편향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명 원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FAX : 02-744-7241 / E-mail : mwinjesus@yahoo.co.kr

편집증에 대한 이론들은 오래전부터 편집증을 '자기'와 관련된 장애로 여겨왔다. 고전적인 정신 역동 입장에서는, 피해망상이 자신의 정신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해 자기를 방어하는 시도라고 설명한다(Winters & Neale, 1983). 예를 들어, 프로이드(1915/1956)는 편집증을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애적 갈망을 다루는 시도로 보았다. 또한 Colby, Faught와 Parkinson(1979)에 따르면, 피해망상은 자존감에 대한 위협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그런 위협들을 외부요인으로 귀인하려는 방어기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Zigler와 Glick(1988)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진짜 정신분열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우울 경험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위장된 우울증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편집증은 우울증의 고통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로서 자기가치감의 상실에 따른 수치심과 죄책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Zigler와 Glick (1988)에 의하면, 피해망상이 있는 사람은 두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부적절감을 완화시킨다. 첫째, 이들은 부적절함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세계에 투사하며, 둘째, 피해망상을 통해 자기중요감을 갖게 됨으로써 자기고양을 시킨다.

이러한 설명들과 일치하게, 인지이론에 따른 최근 연구들은 피해망상이 다음의 세 가지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 결과를

외부에 귀인하는 것, 자기개념에 관한 정보를 편향되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위협과 관련된 자극에 편향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훈진, 1997; Fenigstein & Venable, 1992; Kaney, Wolfenden, Dewey, & Bentall, 1992; Lyon, Kaney, & Bentall, 1994). 이러한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해 Bentall, Kinderman과 Kaney(1994)는 Higgins(1987)의 자기괴리이론을 적용하여 편집성 사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망상 환자들이 위협 관련 정보를 접하면,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괴리가 활성화되며, 이는 방어적 설명 편향을 일으켜서, 실제/이상 괴리를 줄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망상적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상황마다 순간순간 변하는 역동적이고 반응적인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 모델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은 편집성 사람들이 기저에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편집성 사람들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으면 기저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괴리가 활성화된다 ('나는 내가 바라는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현적이며, 겉으로는 부정적인 사건, 즉 자기 개념에 위협을 가져온 사건을 외부에 귀인하는 편향을 보인다('이것은 나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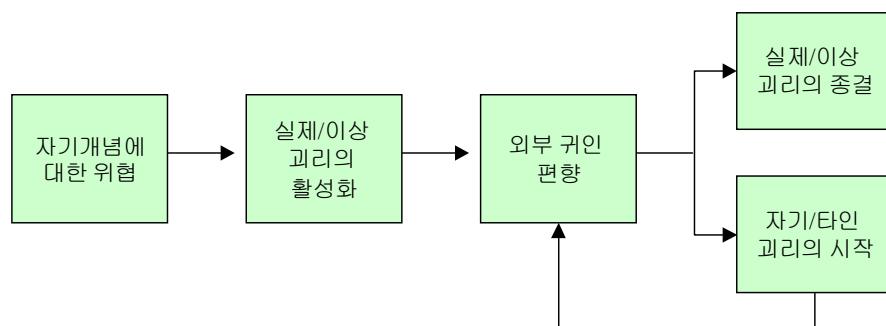


그림 1. 편집성 사고에 대한 인지 모델(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편향된 외부 귀인을 함으로써 실제/이상 괴리는 없어지고(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다'), 대신에 자기/타인 괴리, 즉 자기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자기에 대한 타인의 관점에 대한 신념 간의 괴리(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를 나쁘게 보고 있다')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극단적으로는 피해망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망상에 대해서 두가지 폭넓은 설명이 제시되어왔는데, 하나는 Kraepelin(1919/73p) 제안에서 Maher(1974)가 더 정교화시킨 것으로, 망상 신념이 파격적인 지각 경험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이다. 망상 신념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추론 과정과 관련된다. 여러 연구들은, 망상이 있는 사람들이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둔감하다는 이론을 지지하며, 망상이 정보처리에서의 이상과 관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Brennan & Hemsley, 1984; Garety, Hemsley, & Wessely, 1991; Huq, Garety, & Hemsley, 1988).

이런 정보처리에서의 이상은 앞서 말한 바대로 귀인편향, 자기관련 정보처리 편향, 선택적 주의 편향 등과 관련해서 연구되어왔다. 먼저 귀인편향에 있어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망상 환자들이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외부적, 전체적, 안정적 귀인을 하고, 긍정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내부적, 전체적, 안정적 귀인을 함을 발견했다(Candido & Romney, 1990; Kaney & Bentall, 1989; Lyon et al., 1994). 이훈진(1997)은 편집성향과 피해망상을 연속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두 증상과 귀인양식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편집성향 집단에서는 편집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점수가 낮았고 피해망상 집단에서는 긍정 사건을 부정 사건보다 더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총체적으로

귀인했으며, 특히 긍정 사건은 내부귀인하고 부정 사건은 극도로 외부귀인 하였다.

Kaney와 Bentall(1992)은 피해망상 환자, 주요 정동장애 환자 및 정상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을 연구하였다. 자기봉사적 편향은 긍정적 결과들을 내부로, 부정적 결과들을 외부로 귀인하는 경향으로서, 망상환자들의 귀인양식은 자기봉사적 편향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실험에서 망상 피험자들은 이전 조건에서 자신의 통제력이 더 크다고 하는 자기봉사적 편향을 보였다. Kaney와 Bentall(1992)은, 피해 망상이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로 기능한다는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러한 자기봉사적 귀인편향의 동기는 부정적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포함으로써 자존감의 저하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한 Lyon, Kaney와 Bentall(1994)은, 비명백 귀인양식 검사인 실용적 추리검사(Pragmatic Inference Task)를 사용한 연구에서 망상 환자들의 외부귀인편향이 내현적으로 인과성의 판단을 하게 될 때는 없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관찰들은, 피해망상 사람들이 지닌 자기보호적(self-protective) 성질 때문에, 외현적 자기개념을 평가할 때는 자기봉사적 편향을 보이지만, 자동적 인지 과정이 평가될 때는 오히려 기저의 약한 자기개념이 드러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의 귀인양식 측정이 귀인소재를 내부-외부로만 구분해 온 것과 달리, Kinderman과 Bentall(1996a)은 귀인양식의 내부성 차원을 내부, 외부-사람, 외부-상황의 세 가지 귀인 소재로 구분하고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내부, 사람, 상황 귀인 질문지(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Questionnaire; IPSAQ)를 만들어서 귀인양식을 측정하였다. 이것은 외부화 편향(Externalizing Bias, EB; 부정적 사건을 외부 원인에

더 많이 귀인하는 경향과 개인화 편향(Personalizing Bias, PB; 부정적 사건을 외부상황보다 외부사람에게 더 많이 귀인하는 경향)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한다. 연구 결과, 자기비난은 ASQ의 내부성 점수 및 우울 기분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고, 편집증은 외부사람 귀인의 비율을 나타내는 점수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 Kinderman과 Bentall(1997)은 편집성 환자들은 외부사람 귀인편향을 재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편집성 사람들의 귀인편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이들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외부,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는 편향을 보이며, 이런 귀인편향은 편집성 편집증 집단보다 피해망상 집단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현적으로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부 귀인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편집성 사람들이 보이는 귀인편향이 부정적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림으로써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방어적 과정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최근의 인지적 연구들은 망상이, 귀인편향 외에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의 이상과도 관련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Kinderman(1994)은 정서적 Stroop 과제를 사용해서 피해망상환자와 우울증 환자 및 정상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긍정적 및 부정적 특질 단어에 대한 주의를 연구하였다. 피해망상 환자들은 자기기술 평정에서는 부정적 형용사들보다 긍정적 형용사들에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정을 했으나, 색명명 시에는 긍정적, 부정적 단어 모두에 현저한 간섭을 보였다. 이는 피해망상 사람들도 우울한 사람들만큼, 자기개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의편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부정적(낮은 자존감) 단어들은 긍정적 단어들보다 색명명에서 더 큰 간섭을 일으켰는데, 이는 두 집단이 모두 자존감에 대한 잠재적

위협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Stroop 간섭과 자기기술 평정이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두 환자 집단에서 색명명에서의 간섭 패턴이 비슷하면서 자기기술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피해망상 사람들이 자기개념과 관련된 방어적 인지편향을 지니고 있음을 지지한다. 이훈진(1997)의 연구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들은 편집증의 이론에 중요한 함축성을 갖는다. 앞에서 자기보호적 기능을 하는 인지적 편향에 대해 기술했는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자기개념 정보처리에서의 이상은 그런 인지적 편향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피해망상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해 자기보호적 인지편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개관한 귀인편향 연구에서 망상피험자는 노력하는 (의식적) 과제에서는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자동적 과제에서는 우울 피험자와 유사하게 반응했다 (Lyon et al., 1994). 위의 연구도 이러한 결과와 일치해서, 자동적 과제인 Stroop에서는 우울증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고, 의식적 과제인 자기기술 평정에서는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정리하면, 편집성 사람들은 외현적으로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개념 관련 자극 모두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자존감에 대한 위협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망상 사람들이 보이는 정보처리 편향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선택적 주의편향에 대한 것이다. 몇몇 연구 결과들은 피해망상 환자들이 위협 관련 자극에 선택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위협적인 사건들을 선호적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Bentall과 Kaney(1989)의 정서 Stroop 과제를 통한 연구, Kaney 등(1992)의 위협적인 주제로 구성된 이야기에 대한 회상과제 연구 그리고 Bentall, Kaney와 Bowen-Jones(1995)의

위협관련 단어의 회상편향 연구 등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들은 위협-관련 정보에 대한 선호적(preferential) 처리가 피해 망상을 유지하게 하는 인지적 기제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망상 환자들의 귀인편향이 기저의 부정적 자기도식을 반영한다면 망상 환자들은 우울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처리 편향을 보일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들은 혼합된 결과들을 보이지만, 망상환자들의 인지체계가 부분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Bentall & Kaney, 1989; Bentall, Kaney, & Bowen-Jones, 1995; Fenigstein, 1995; Kaney et al, 1992). 이는 피해망상 사람들이 기저에는 우울증 사람들처럼 부정적인 자기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편집성 사람들의 귀인편향, 자기관련 자극에 대한 정보처리 편향, 그리고 선택적 주의 편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개관하였다. 이 세 가지 특성들은 피해망상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집성 사람들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자극들에 민감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내현적으로는 우울증 사람들처럼 자존감이 낮고 자기개념이 취약하므로 부정적인 사건들에 더욱 과민하게 반응하며, 낮은 자존감을 방어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러한 방어적 시도들 중의 하나가 바로 외부귀인 편향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개관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귀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질문지나 단순 과제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런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질문지나 단순 과제를 통한 검사는 실제 상황으로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편집성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떤 행동양식을 보일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둘째, 우울 피험자들의 기억 편향들에 대한 연구에서 그런 편향들이 특질 관련이라기 보다는 상태 관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견되었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에서 편집증 피험자들이 보이는 인지적 이상도 편집증의 삽화에 특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Bentall, Kaney & Bowen-Jones, 1995). 따라서 일반적인 귀인양식을 측정하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의 귀인양식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셋째, 의미있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귀인을 하는 것은 역동적 과정이며, 여기에는 많은 환경적, 맥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에 민감한 인지적 과정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인 양식을 단순한 측정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자기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카드 Stroop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훈진(1997)은 이러한 카드 Stroop 과제가 개별 단어별로 반응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목록별로 반응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도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측정치를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연구들은 대부분 피해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편집성향과 피해망상이 연속선 상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이훈진, 1997), 앞서 개관한 연구 결과들이 편집성향자들에게도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훈진(1997)의 연구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는 편집성향자들에 대한 더 폭넓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편집성 사람들이 기저에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한 시도로 부정적 사건(자기

개념을 위협하는 사건)을 외부에,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고 이로 인해 편집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제안하고 있다(Bentall et al, 1994).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개별적인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자기개념에 위협적인 사건이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활성화시켰을 때, 자기관련 자극들에 대한 주의편향이나 귀인양식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귀인편향이 외현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편집성 사람들의 부정적인 자기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Bentall 등(1994)의 인지모델도 편집성 사람들의 기저의 부정적 자기개념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인지과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편집성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될 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물론 자기개념을 고양시키는 사건이 한번 있었다고 해서 편집성 사람들의 기저에 있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Bentall 등(1994)이 말한 것처럼 활성화된 자기도식에 따른 인지과정은 역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매우 반응적인 것이다. 따라서 편집성 사람들의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지 않게 되면, 잇따르는 인지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야 한다. 편집성 사람들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은 경우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런 비교는 자기개념에 대한 방어적 시도와 귀인편향과의 관계성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개념을 고양시키는 사건이 편집성 사람들이 잇따른 인지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말해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집성 편집자들의 자기개념을 위협하거나 고양시켰을 때 자기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및 귀인 편향을 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 편집성 편집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관련 단어에 더 주의편향을 보일 것이다. 즉 편집성 편집자는 성격특성과 관련된 긍정, 부정단어를 성격특성과 무관한 단어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재인할 것이다. 또한 자기개념이 활성화되어서 자기관련 단어에 대한 오재인율도 높을 것이다. 특히 편집성 편집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기관련 정보처리 편향이 더 심해지며, 부정적 단어에 더 민감한 주의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실패에 대한 귀인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우울성 편집자는 과제에서의 실패를 내부로 귀인하는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편집성 편집자는 과제에서의 실패를 외부 사람, 즉 파트너에게 귀인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편집성 편집자는 이러한 귀인편향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성공에 대한 귀인에서, 우울성 편집자는 외부귀인을 많이 하는 반면에 편집성 편집자는 내부귀인을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셋째, 자기기술 평정에서, 부정적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실패를 외부사람에게로 귀인한 편집성 편집자는, 다른 집단과 달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정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집단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정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636명의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편집의심척도와 우울척도를 실시하여, 편집성향, 우울성향 정상통제 집단에 각 36명씩을 선발하였다. 편집의심 척도와 우울척도 간의 상관이 .6으로 매우 높아서 피험자 선발이 쉽지 않았다. 먼저, 편집성향 집단은 편집점수의 상위 20% ($M=144.8$), 우울점수의 하위 35%($M=5.1$)를 기준으로 선발하였고, 우울성향 집단은 편집점수의 하위 36%($M=121$), 우울점수의 상위 22%($M=15.6$)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상통제 집단은 편집점수($M=91.4$)와 우울점수($M=3.2$) 각각 하위 15%를 기준으로 하였다. 각 피험자들은 실험에서 긍정피드백을 받는 집단과 부정피드백을 받는 집단에 18명씩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측정도구 및 검사과제

편집의심척도. Rawlings와 Freeman(1997)이 제작한 척도로 이명원(199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제작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의 α)는 .92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Beck 우울척도.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8로 보고되었다.

어휘력 검사

컴퓨터에 한 단어가 제시되면, 이 단어에 포함된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서 제한 시간(1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단어를 만들어 내도록 한다.

기억력 검사

단어 · 비단어 판단과제. 단어 90개와 비단어 90개가 무선적으로 제시된다. 단어들은 성격특성

과 관련된 긍정적 단어와 부정적 단어, 그리고 성격과 무관한 중성단어, 각 30개로 이루어져 있다. 피험자들에게 단어가 나오는 대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단어인지 비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한다.

단어재인 과제. 단어 · 비단어 판단에서 제시되었던 긍정, 부정, 중성단어 각 30개씩 90개와 제시되지 않았던 긍정, 부정, 중성 단어 각 25개씩 75개를 합쳐서 모두 165개의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된다. 피험자들에게 단어를 앞에서 보았는지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한다. 이 검사에서는 각 단어유형별로 재인정확율과 재인에 걸리는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귀인 검사

모두 7개의 문항이 컴퓨터 화면에 차례로 하나씩 제시된다. 문항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소재에 대한 것과 파트너 평가에 대한 것¹⁾, 그리고 2개의 매꾸기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험자들은 문항을 보고 컴퓨터 자판의 번호를 눌러 반응한다.

단어 회상 검사

앞에서 실시한 단어재인 검사에서 기억나는 단어들을 5개 정도 종이에 적게 한다. 각 단어유형별로 회상된 단어의 개수가 계산되었다.

1) 피험자들이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를 외부에,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귀인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잘 통제되어야 할 실험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참여하면, 개인차, 피험자들의 선호정도, 상황에 따른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인들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실제로 없는 파트너를 피험자에게 소개하고,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조작해서 파트너에게 귀인하는 정도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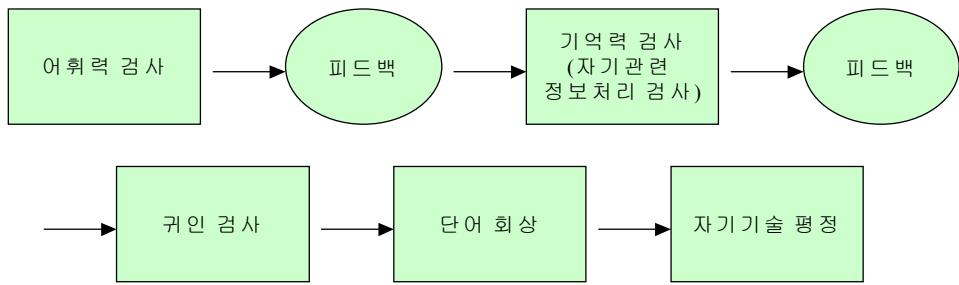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실험 절차

자기기술 평정

단어·비단어 판단과제에서 제시되었던 긍정단어와 부정단어 각각 30개가 적힌 종이를 주고 각 단어가 얼마나 자기를 잘 기술하는지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전적으로 그렇다)까지의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한다.

절차

심리학 관련 수업시간에 질문지를 실시하여 피험자들을 선발하였고, 개별적인 전화접촉을 통해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이 오면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휘력 검사와 기억력 검사로 이루어진 컴퓨터 지능검사 프로그램을 다른 방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수행할 것이라는 지시문을 보게 하였다. 피험자들이 지시문을 읽는 동안, 실험자는 다른 연구실에 실험 시작을 알리는 전화를 하는 척해서 실제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전체실험에 대한 지시문을 읽고 나면 바로 어휘력 검사 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문이 화면에 제시되었다. 어휘력 검사는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검사가 끝나면 점수를 합산하는 중이라는 글이 잠시(15초) 화면에 나온 후 미리 정해진 대로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는다. 피드백을 받은

후 기억력 검사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실제로 자기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이다. 기억력 검사는 먼저 단어·비단어 판단 과제를 한 후, 단어재인 과제를 하도록 구성되었고, 7-8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 검사에서는 각 단어유형별 재인정확율과 오재인율 및 재인에 걸리는 반응시간이 측정되었다. 이 과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단어재인 과제를 실시한다. 검사가 끝난 후 마찬가지로 '합산 중'이라는 글이 나오고 나서 긍정, 부정 집단에 따라 피드백을 준다. 어휘력 검사에서 긍정피드백을 받은 피험자는 여기서도 긍정피드백을 받았다.

이후의 귀인검사에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실패에 대한 귀인, 성공에 대한 귀인, 파트너의 수행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질문이 한 화면에 하나씩 제시된다. 컴퓨터 과제가 끝나면, 앞서 한 단어재인 검사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기억나는 단어들을 종이에 적게 하였고, 마지막으로 긍정, 부정 단어들에 대한 자기기술 평정을 하게 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 피험자들에게 실험의 목적과 조작된 피드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전체 실험 절차는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2는 실험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계 및 분석

자기개념을 알아보고자 하는 단어재인과 단어회상 실험은, 집단(편집성향, 우울성향, 정상통제)과 피드백(긍정, 부정), 그리고 단어유형(긍정, 부정, 중성)의 $3 \times 2 \times (3)$ 설계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집단과 피드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단어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자기기술 평정은 집단(편집성향, 우울성향, 정상통제)과 피드백(긍정, 부정), 그리고 단어유형(긍정, 부정)의 $3 \times 2 \times (2)$ 설계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단과 피드백은 피험자간 변인이었으며, 단어유형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단어재인과 단어회상 그리고 자기기술 평정과제들에 대해서는 3원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 차이검증(Tukey검증 사용)을 하였다.

귀인 검사를 알아보는 실험은 집단(편집성향, 우울성향, 정상통제)과 피드백(긍정, 부정)의 3×2 설계였다. 집단과 피드백 모두 피험자간 변인이었다. 귀인검사에 대해서는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귀인소재에 대한 집단별 빈도를 비교하였으며, 편집점수와 우울점수가 귀인양식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조작 검증(Manipulation Check)

본 실험에서는 피드백을 조작하여 부정피드백 집단에게는 자기개념에 위협을 가하고 긍정피드백 집단에게는 그러한 위협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험 후에 자기기술평정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편집성향 집단을 제외하고, 우울

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평정점수가 더 낮았다. 또한 세 집단 전체에서도 부정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평정점수가 더 낮았는데, 이 점수 차이는 유의미한 것이었다, $F(1, 102)=6.46, p<.01$. 따라서 피드백 조작은 자기개념을 위협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자기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단어재인 검사에서는 재인정확율과 오재인율, 그리고 단어들을 재인하는데 걸린 반응시간 등, 모두 3개의 종속측정치가 얻어졌으며, 이것들은 모두 긍정, 부정, 중성 단어들에 대해 따로 측정되었다.

먼저 재인정확율에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유형별 재인정확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집단, 피드백, 단어유형의 3원 변량분석 결과가 각각 표 1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4, 204)=2.44, p<.05$. 부정단어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편집성향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부정단어를 훨씬 정확하게 재인하였다. 이것은 편집성향 집단이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자극에 통제집단보다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향성만을 보였다, $F(2, 204)=2.51, p<.10$. 긍정피드백에서는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의 재인정확율이 비슷했지만, 부정피드백에서는 긍정단어에 대한 재인정확율이 약간 더 높았다. 집단과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모든 집단이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더 잘 재인하였다. 집단과 피드백과 단어유형 간의 3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유형별 재인정확율

		편집성향 집단	우울성향 집단	정상통제 집단
긍정 피드백	긍정 재인정확율	72.6(3.5)	76.0(3.5)	70.7(3.5)
	부정 재인정확율	78.7(3.3)	75.2(3.3)	68.3(3.3)
	중성 재인정확율	66.3(3.6)	64.8(3.6)	60.7(3.6)
부정 피드백	긍정 재인정확율	65.6(3.5)	68.5(3.5)	60.9(3.5)
	부정 재인정확율	69.6(3.3)	67.4(3.3)	56.3(3.3)
	중성 재인정확율	60.2(3.6)	62.0(3.6)	57.8(3.6)

괄호 안은 표준오차.

부정 재인정확율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F(2, 51)=3.81, p<.05$; 정상통제 < 우울성향 < 편집성향
영문 아래첨자는 Tukey 검증에 의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냄.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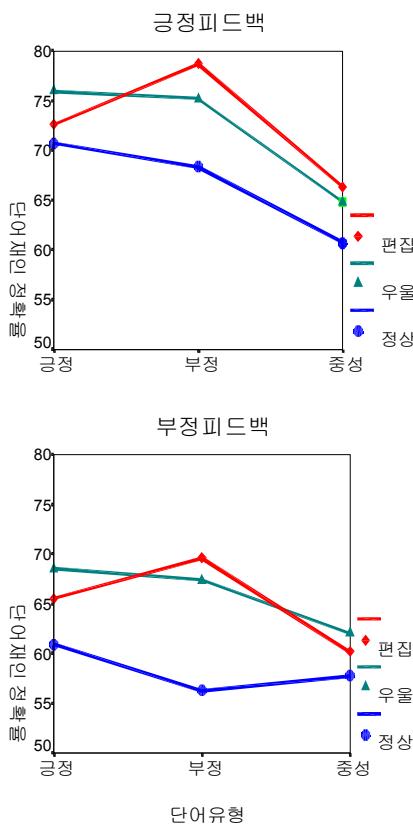


그림 3.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재인정확율

다음으로 재인RT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다.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유형별 재인RT 평균에 대한 3원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향성을 보였다, $F(4, 204)=2.10, p<.10$. 긍정단어의 재인RT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해서, 우울성향 집단이 정상통제 집단보다 긍정단어를 더 빨리 재인하였다, $F(2, 51)=3.81, p<.05$. 부정단어의 재인RT에서는 차이의 경향성만 보였으며, 우울성향 집단이 정상통제 집단보다 RT가 약간 더 짧았다, $F(2, 51)=2.90, p<.06$. 즉 우울성향 집단은 정상통제 집단보다 자기개념과 관련된 단어들을 더 빨리 재인하였다.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204)=3.18, p<.05$. 부정단어의 재인RT에서 피드백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F(1, 51)=5.2, p<.05$. 즉 부정단어의 경우, 긍정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부정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더 빨리 재인하였다. 집단과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3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

유형별 회상 수에 대한 3원 변량분석 결과, 집단과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4, 168)=2.89, p<.05$. 부정단어 회상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으며, 편집성향과 우울성향 집단이 정상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부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F(2, 42)=10.75, p<.001$. 이것은 편집성향과 우울성향 집단이 부정단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2, 168)=3.28, p<.05$. 단어유형별 피드백 간의 차이는 중성단어의 회상에서 유의미하였다, $F(1, 42)=4.00, p<.05$. 즉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중성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집단과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3원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보면 긍정피드백 조건에서는 세 집단 모두 긍정단어를 많이 회상하였다. 그러나 부정피드백 조건의 경우, 편집성향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이 정상통제 집단보다 부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는데, 정상통제 집단은 부정단어의 회상이 더 줄어들는데 반해,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 단어의 회상이 더 늘어났다. 즉 부정피드백을 받았을 때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단어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였지만, 정상통제 집단은 긍정단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조건에서나 정상통제 집단은 부정단어를 매우 적게 회상하였고, 상대적으로 긍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자기개념 위협에 따른 귀인 편향

귀인검사에서 얻어진 종속측정치들은 다음과 같다: 실패 및 성공에 대한 귀인소재(내부 귀인, 외부사람 귀인, 외부상황 귀인),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각 소재에 귀인하는 정도. 그리고 부차적으로 파트너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다.

먼저 실패 및 성공에 대한 귀인에서 집단(편집성향, 우울성향, 정상통제)과 피드백(긍정, 부정) 간의 이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단과 피드백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성공에 대한 귀인소재에서 유의미하였다, $F(2, 102)=3.09, p<.05$.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성공을 내부로 더 많이 귀인한 반면, 우울성향 집단은 외부사람에게 가장 많이 귀인하였고 외부상황 귀인은 전혀 없었다. 즉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성공을 자기 탓으로 돌렸지만, 우울성향 집단은 성공을 상대방 탓으로 가장 많이 돌렸고, 상황적 요인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생각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우울성향 집단이, 성공을 외부상황으로 귀인한 경우가 다른 집단보다 더 많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반면, 우울성향 집단은 파트너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나쁜 점수를 받았을 때는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그 점수를 받는데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한 반면, 우울성향 집단은 파트너가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한 경우도 다른 집단보다 더 많았다.

성공과 실패를, 내부/외부사람/외부상황 중에서 어디에 귀인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관심사이기 때문에 각 집단별로 각 귀인양식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그럼 4는 각 집단과 피드백 조건 별로 귀인소재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각 그래프에 표시된 귀인비율(%)의 최고값은 그래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었다. 먼저 실패에 대한 귀인을 보면, 편집성향 집단은 긍정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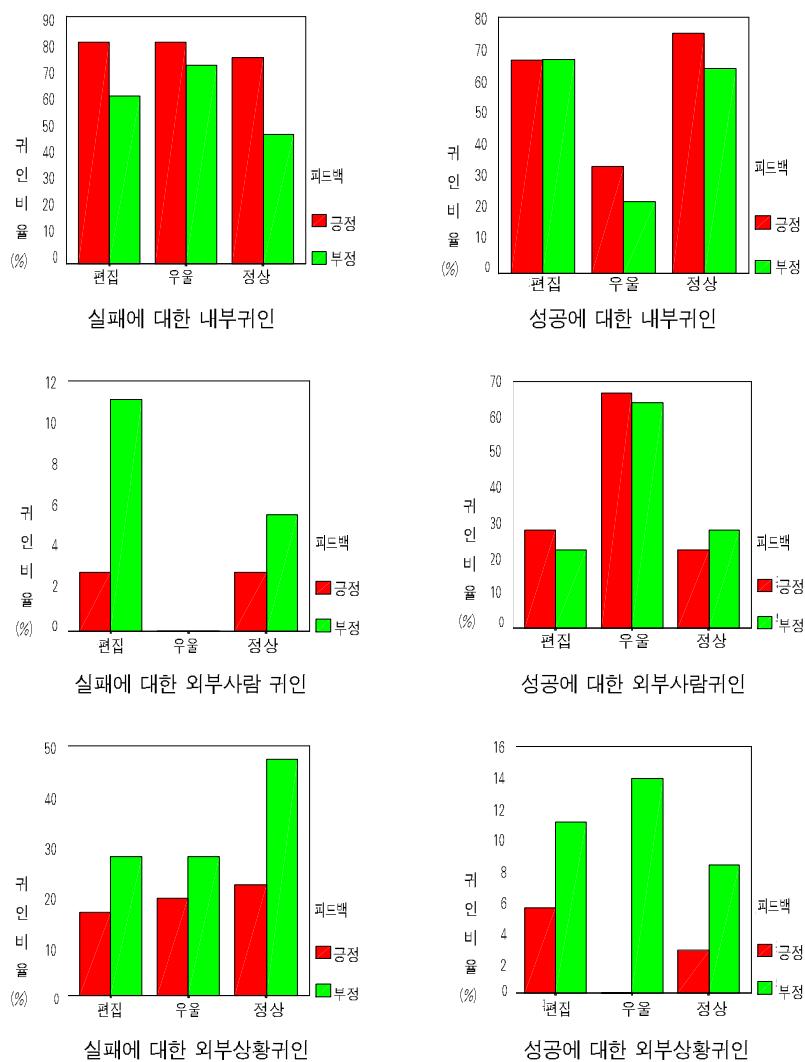


그림 4.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귀인양식 비율 비교

드백 조건에 비해 부정피드백 조건에서 실패에 대한 외부사람 귀인을 더 많이 하였으며, 우울성향 집단은 피드백 조건에 상관없이 실패에 대해 외부사람 귀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한 내부귀인을 보면, 다른 집단과 같이 편집성향 집단도 긍정피드백 조건에서 실패에 대한 내부귀인을 더 많이 하였다. 부정피드백 조건에서는 우울

성향 집단이 내부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세집단 모두 실패에 대해 내부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다.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 편집성향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은 내부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지만, 편집성향 집단에서는 외부사람 귀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정상통제 집단은 외부상황

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다.

성공에 대해서 우울성향 집단은 피드백 조건에 상관없이 외부사람 귀인을 매우 많이 하였다.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은 성공에 대해서 내부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고, 성공에 대한 내부 귀인은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이 많이 하였는데, 긍정피드백을 받은 정상통제 집단이 가장 많이, 부정피드백을 받은 우울성향 집단이 가장 적게 하였다. 또한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외부상황 귀인을 많이 하였으며, 부정피드백을 받은 우울성향 집단이 외부상황 귀인을 가장 많이 하였다.

실패나 성공을 내부(자신), 외부사람(파트너), 외부상황(과제유형) 중 어디에 귀인하는지를 편집성향이나 우울성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집점수와 우울점수를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실패 및 성공에 대한 귀인소재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편집점수가 실패 귀인 소재 변량의 4.5%를 설명하였고 $F=4.96$, $p<.05$, 우울점수는 성공 귀인소재 변량의 4.2%를 설명하였다, $F=4.67$, $p<.05$.

마지막으로 파트너의 수행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 조건에서 각 집단의 파트너 평가점수에 대한 2원 변량분석 결과, 집단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02)=4.51$, $p<.01$. 편집성향 집단은 파트너를 낮게 평가하였

고, 우울성향 집단은 높게 평가하였다. 피드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02)=39.40$, $p<.001$. 부정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긍정피드백을 받았을 때 파트너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집단과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파트너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어떤 피드백 조건에서든지 편집성향 집단은 파트너를 낮게, 우울성향 집단은 파트너를 높게 평가하였다.

각 집단이 성격특성을 나타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단어에 대해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정한 점수의 3원 변량분석 결과가 그림 5에 제시되어있다. 집단과 피드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집단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02)=27.97$, $p<.001$. 단어유형별로 보면, 긍정단어의 자기기술 평정에서의 집단 단순주효과 $F(2, 51)=5.18$, $p<.01$ 외, 부정단어의 자기기술 평정에서의 집단 단순주효과 $F(2, 51)=17.04$, $p<.001$ 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긍정단어의 평정점수는 우울성향 집단이 가장 낮았고, 정상통제 집단이 가장 높았다. 부정단어의 평정점수는 정상통제 집단이 가장 낮았고, 편집성향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은 비슷하였다. 피드백과 단어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02)=6.46$, $p<.05$. 단어유형별 피드백의 단순주효과가 긍정단어의 평정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표 2. 실패귀인에 대한 편집점수의 설명변량과 성공귀인에 대한 우울점수의 설명변량

독립변인	종속변인	R ²	조정된 R ²	F	회귀계수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표준화된 회귀계수	t
편집점수	실패귀인	.05	.04	4.96 *	-.0046	.002	-.211	-2.23 *
우울점수	성공귀인	.04	.03	4.67 *	-.0128	.006	-.205	-2.16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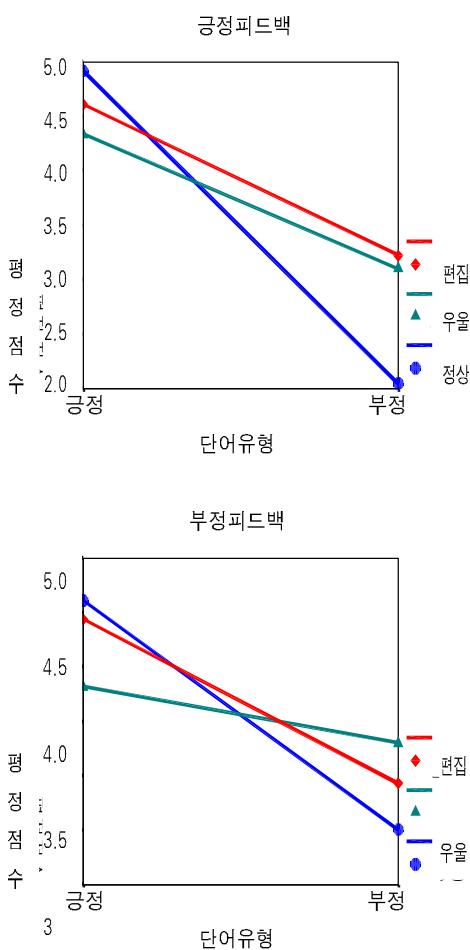


그림2.5 긍정 혹은 부정 피드백을 받은 각 집단의 단어유형별 자기기술 평정점수

2.0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평정점수가 더 높았다. $F=7.68, p<.01$.

또한 집단과 피드백 및 단어유형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경향성을 보였다. $F(2, 102)=2.59, p<.08$. 단어유형별로 각 피드백 조건에서 집단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먼저 긍정단어 평정에서 긍정피드백을 받은 집단들 중에서는 우울성향 집단이 점수가 낮았고, 정상통제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다, $F(2, 51)=4.89, p<.01$. 또 부정피드백을 받은 집단들 중에서는 우울성향 집단이 점수가 낮았고, 편집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F(2, 51)=6.95, p<.01$. 다음으로 부정단어 평정에서, 긍정피드백을 받은 집단들 중에서는 정상통제 집단이 점수가 낮았고, 우울성향 집단과 편집성향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F(2, 51)=28.53, p<.001$. 부정피드백을 받은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정상통제 집단이 점수가 낮았고, 편집성향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이 점수가 높았다. $F(2, 51)=10.49, p<.001$.

긍정피드백 조건에서 긍정단어에 대한 자기기술 평정점수는 세 집단 모두가 높았으며, 부정단어에 대해서는 편집성향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이 정상통제 집단보다 더 자기기술적으로 평정하였다. 그런데 부정피드백 조건에서 우울성향 집단은 긍정단어에 대한 평정점수가 매우 낮아진데 반해, 정상통제 집단과 편집성향 집단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정상통제 집단은 부정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부정단어들을 유의미하게 더 자기기술적으로 평정하였는데 반해,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단어에 대한 평정점수가 긍정피드백 조건에서보다 더 낮아졌다. 즉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피드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덜 부정적으로 평정하였고, 정상통제 집단은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평정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은 편집성향 집단이 기저에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더 활성화되어 자기와 관련된 부정적 자극에 더 민

감한 주의를 보이고, 자신의 실패를 외부의 사람에게 귀인함으로써 외현적 자기개념이 더 증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활성화되었을 때만큼 부정적인 자기관련 정보에 민감해지지 않으며, 실패를 외부의 사람에게 귀인하는 경향도 더 낮아지고 상대방을 더 좋게 평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과 일치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단어재인 검사에서 편집성향 집단은 우울성향 집단과 정상통제 집단에 비해 부정단어를 더 정확하게 재인하였다. 또한 부정단어를 재인하는데 걸린 RT도 비교적 짧았다. 이는 편집성향 집단이 부정단어에 대한 민감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로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재인정확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긍정피드백의 효과는 모든 집단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단어유형에 걸쳐서 나타난 것이므로, 긍정피드백이 예상외로 강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어회상을 보면, 편집성향 집단이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긍정단어는 정상통제 집단이나 우울성향 집단과 비슷하게 회상하였고, 부정단어는 우울성향 집단과 같게 회상하였다. 그러나 부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정상통제 집단이나 우울성향 집단과 달리 긍정단어를 매우 적게 회상하였고, 부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특히 정상통제 집단과 우울성향 집단은 어느 피드백 조건에서나 긍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한 반면에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피드백 조건에서 긍정단어보다 부정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편집성향자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성격관

련 특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귀인양식에 있어서 편집성향 집단은 부정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았을 때 과제에서의 실패를 파트너에게 귀인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실패를 파트너에게 귀인한 비율이 통제집단과 같았고, 자신에게 귀인한 비율도 부정적 피드백을 받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편집성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외부귀인 편향을 보인다는 많은 연구들에 따른다면(이훈진, 1997; Bentall, Kinderman, & Kaney, 1994; Colby, Faught, & Parkinson, 1979; Lyon et al., 1994; Zigler & Glick, 1988),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편집성향 집단의 이러한 귀인 특성은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역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은 경우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귀인편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 피드백, 즉 자기에 대한 위협이 편집성향자에게 방어과정을 유발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제에서 자신이 성취한 부분, 즉 성공에 대한 귀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울성향 집단은 피드백 조건에 상관없이 과제에서의 성취 부분을 파트너 탓으로 가장 많이 돌렸다. 편집성향 집단은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았을 때에나 그 렇지 않을 때에나 과제에서의 성취 부분을 자신의 탓으로 가장 많이 돌렸다. 이는 편집성 사람들이 긍정적 결과를 내부로 귀인하는 자기봉사적 편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본 연구의 가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긍정단어와 부정단어에 대한 자기기술평정에 있어서, 편집성향 집단은 우울성향 집단과 달리 긍정피드백을 받았을 때나 부정피드백을 받았을 때 모두 긍정단어에 대한 평정점수가 정상통제

집단과 비슷하였다. 여기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편집성향 집단만이 부정피드백 조건을 받은 경우보다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 부정단 어에 대한 자기기술 평정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즉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성격특성 단어들에 대해 더 자기와 일치한다고 평정한 것이다. 이것은 귀인양식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편집성향자의 자기개념이 고양되었을 때 그들은 굳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통제집단과 같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자기개념을 고양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편집성향 집단 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자기개념에 대한 위협이 편집성향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방어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의의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편집성 사람들이 자기개념에 위협을 받았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외부귀인편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외현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기존의 연구 제안들을 하나의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 최근 편집증 및 피해망상에 관한 연구들의 큰 흐름은 이 사람들이 기저에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이훈진, 1997; Akhtar, 1990; Kinderman, 1994; Zigler & Glick, 1988).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자기개념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가 부정적 사건(자기개념을 위협하는 사건)을 외부에, 특히 다른 사람에게 귀인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편집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제안하고 있다(Bentall et al., 1994; Kinderman & Bentall, 1996; Lyon et al., 1994). 본 연구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Bentall 등(1994)의 모델을 토대로, 낮은 자존감에 대한 방어가 편집성 사람들에게 정보처리에서의 편향 및 귀인편향을 일으킨다는 최근 연구들의 제안을 실험 상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질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정 상황을 조작하여 편집성향자들의 귀인편향을 조사하였다. 이훈진(1997)은 실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귀인편향을 조사하였는데, 이것 역시 질문지를 통한 것이었다. 이훈진(1997)은 이러한 질문지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서, 보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제작하거나 모의상황 설정을 통해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상황에서는 여러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파트너가 필요한 경우, 파트너로 인한 수많은 변인들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는 없는 가상의 파트너를 피험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파트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였고, 이런 모의상황을 통해 편집성향자들의 귀인양식을 조사하였다.

셋째, 귀인양식 검사에서 기존의 내부성 차원에서의 외부귀인을 외부상황 귀인과 외부사람 귀인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는 Kinderman과 Bentall(1996a)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서, 과제에서의 실패에 대해 편집성향 집단은 우울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파트너에게 잘못을 귀인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것은 이들의 부정응적 인지 특성이 상황보다는 사람에게 더 초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편집성향자들의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았을 때 뿐 아니라, 자기개념이 고양되었을 때의 인지특성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편집성 사람들

의 부정적 인지 특성만을 다루어왔고, 특히 부정적 자기개념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인지적 이상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됨을 강조하였다(Candido & Romney, 1990; Fear, Sharp, & Healy, 1996; Kaney & Bentall, 1989; Lyon et al., 1994).. 그러나 Bentall 등(1994)이 말했듯이 이러한 특성들은 상황마다 순간 순간 변하는 역동적이고 반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자기개념의 위협은 과제수행에 대한 피드백으로 조작되었는데, 실험 결과, 편집성향 집단 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집단과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집단 간에 자기관련 자극에 대한 주의 및 귀인양식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귀인양식에 있어서, 편집성향 집단이 부정피드백을 받았을 때보다 긍정피드백을 받았을 때 실패를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을 방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통제집단처럼 실패를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같은 편집성향 집단이면서도 자기개념에 위협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귀인양식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자기개념의 위협이 실제로 방어과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적응적 인지편향들 뒤에 이들의 자기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훈진(1997)이 말했듯이, 이들의 부정적 자기개념은 치료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본 실험에서는 상황적으로 자기개념을 고양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것은 이런 역기능적인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첫째, 피험자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편집성향을 측정하는 편집의심척도와 우울성향을 측정하는 우울척도 간에 상관이 .6으로 높아서, 각 집단이 편집성향 혹은 우울성향만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런 표집의 문제를 보완한다면 실험에서 좀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험절차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실험 절차가 '어휘력 과제 -피드백-자기관련 정보처리 편향 검사(기억력 과제) -피드백-귀인검사-자기기술 평정'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험을 할 경우 앞에서 한 조작이나 검사가 뒤의 검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피드백을 받은 후에, 즉 자기개념이 위협을 받거나 고양된 후에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의 편향과 귀인 편향을 보기 위해 불가피한 것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오염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기관련 정보처리 검사를 기억력 과제로 위장함으로써 전제적으로 과제를 실시한 후에 귀인검사를 받는 형태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검사들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것은 이와 같은 실험 연구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 상의 문제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편집성 사람들의 내현적인 자기개념을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의 편향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Kinderman, 1994). 그러나 이 측정치가 그 사람의 자기개념을 반영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저의 자기개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개념을 위협하기 위해 긍정피드백과

부정피드백을 주었는데, 여기서 긍정피드백의 효과가 너무 강해서 모든 집단과 모든 단어유형에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은 집단들이 더 좋은 수행을 보였다. 앞으로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개념 상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면 자기개념의 위협 여부와 인지특성과의 관련성을 좀더 정확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련 정보처리에서의 편향과 귀인편향, 그리고 외현적 자기개념을 연결하는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인지과정을 연속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인지과정이 연속적이라는 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외부귀인 편향과 외현적 자기개념과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Bentall 등(1994)이 편집성 사고에 관한 인지모델을 제안하면서, 외부귀인을 통해 실제/이상 괴리가 없어진다고 한 것과 관련되는데, 귀인양식과 자기개념이 어떤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편집성 사람들이 보이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앞으로 편집성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보이는 기제나 발달적 배경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들은 방어적 편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Kinderman과 Bentall(1996)은 편집성 사람들의 귀인편향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기개념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 귀인편향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귀인편향과 내현적인 부정적 자기개념은 함께 발달하며, 귀인편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자기개념은 외현적으로 되지 못하고 내현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으로 편집성 사람들의 인지

특성에 대한 병인론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참고문헌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내부보고서.
- 이명원 (1999). 자기개념 위협에 따른 편집성향자들의 주의편향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0, 98-113.
- 이훈진 (1997). 편집증과 자기개념 및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a). 편집증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4, 83-94.
- 이훈진, 원호택 (1995b).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편집학술발표논문집*, 277-290. 서울: 편자.
- Akhtar, S. (1990). 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a synthesis of developmental, dynamic, and descriptive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4, 5-25.
- Alford, B. A., & Beck, A. T. (1994). Cognitive therapy for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69-38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entall, R. P., & Kaney, S. (1989). Content specif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ecutory delusions: An investigation using the emotional Stroop tes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355-364.
- Bentall, R. P., Kaney, S., & Bowen-Jones, K. (1995).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related, depression-related and neutral word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445-457.
- Bentall, R. P., Kaney, S., & Dewey, M. E. (1991). Paranoid and social reasoning : An attribution theory of analysi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13-23.
- Bentall, R. P., Kinderman, P., & Kaney, S. (1994). The self, attributional processes and abnormal beliefs: Towards a model of persecutory delu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2, 331-341.
- Brennan, J. H., & Hemsley, D. R. (1984). Illusory correlations in paranoid and non-paranoid schizophrenia.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 225-226.
- Brockington, I. (1991). Factors involved in delusion form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suppl. 14), 42-45.
- Candido, C. L., & Romney, D. M. (1990).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vs. depressed pati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355-363.
- Chadwick, P. D. J., & Lowe, C. F. (1990). Measurement and modification of delusional belief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25-232.
- Chapman, L. J., & Chapman, J. P. (1988). The genesis of delusions. In T. F. Oltmanns & B. A. Maher(Eds). *Delusional belief*(pp 167-183). New York: Wiley.
- Colby, K. M., Fought, W. S., & Parkinson, R. C. (1979). Cognitive therapy of paranoid conditions: Heuristics suggestions based on a computer simulation mode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 55-60.
- Fear, C., Sharp, H., & Healy, D. (1996). Cognitive processes in delusional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8, 61-67.
- Fenigstein, A. (1995). A self-schematic model of paranoid thought.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annual meeting, New York, NY.
- Fenigstein, A., & Ve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Garety, P. A. (1991). Reasoning and delusio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suppl. 14), 14-18.
- Garety, P. A., Hemsley, D. R., & Wessely, S. (1991). Reasoning in deluded schizophrenic and paranoid patients - Biases in performance in a probabilistic inference task.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194-201.
- Hemsley, D. R., & Garety, P. A. (1986).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delusions: A Bayesian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9, 51-56.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uq, S. F., Garety, P. A., & Hemsley, D. R. (1988). Probabilistic judgements in deluded and non-deluded subj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04, 801-812.

- Kaney, S.,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serving bia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0, 773-780.
- Kaney, S., & Bentall, R. P. (1989). Persecutory delusions and attributional style.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2, 191-198.
- Kaney, S., Wolfenden, M., Dewey, M. E., & Bentall, R. P. (1992). Persecutory delusions and recall of threatening proposition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 85-87.
- Kinderman, P. (1994). Attentional bias, persecutory delusions and the self-concep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53-66.
- Kinderman, P., & Bentall, R. P. (1996). Self-discrepancies and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or a model of paranoid ide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06-113.
- Kinderman, P., & Bentall, R. P. Causal attributions in paranoia and depression: internal, person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for negative ev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41-345.
- Lyon, H. M., Kaney, S., & Bentall, R. P. (1994). The defensive functions of persecutory delusions: Evidence from attribution task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637-646.
- Maher, B. A. (1974). Delusional thinking and perceptual disorder.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0, 98-113.
- Meissner, W. W. (1981). The schizophrenic and the paranoid process. *Schizophrenia Bulletin*, 7, 611-631.
- Rawlings, D., & Freeman, J. L. (1996). A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paranoia/ suspiciousnes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451-461.
- Sharp, H. M., Fear, C. F., Williams, J. M. G., Healy, D., Lowe, C. F., Yeadon, H., & Holden, R. (1996). Delusional phenomenology-Dimensions of chang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123-142.
- Smari, J., Stefansson, S., & Thorgilsson, H. (1994).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cognition in schizophrenic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387-399.
- Ullmann, L. P., & Krasner, L. (1969). *A psychological approach to abnorm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Wessely, S., Buchanan, A., Reed, A., Cutting, J., Garety, P., & Taylor, P. (1993). Acting on delusions. I: Prevalenc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69-76.
- White, P. A. (1991). Ambiguity in the internal/external distinction i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7, 259-270.
- Winters, K. C., & Neale, J. M. (1983). Delusions and delusional think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 227-253.
- Winters, K. C., & Neale, J. M. (1985). Mania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282-290.
- Young, H. F., & Bentall, R. P. (1995). Hypothesis testing in patients with persecutory delusions: Comparison with depressed and normal subject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353-369.
- Zigler, E., & Glick, M. (1988). Is paranoid schizophrenia really camouflaged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43, 284-290.

원고 접수일 : 2002. 11. 19

제재 확정일 : 2003. 1. 6

Attentional Bias and Attributional Style of People with Paranoid Tendency Threatened to Self-Concept

Myoung-Won Lee

Zoung-Soul Kim

Min-Sup Shin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chool of Medicine

This paper confirmed the cognitive biases of people with paranoid tendencies in either threatening or enhancing self-concept: bias in the information processing relevant to the self, attributional bias, and explicit self-concept.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when their self-concepts are threatened, people with paranoid tendencies become sensitive to stimuli related to self, attribute negative events to others, and explicitly perceive themselves positively. The another goal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such individuals reveal these cognitive biases when their self-concepts are threatened, but in the absence of threat, they reveal these biases to a much lesser degree. Cognitive biases were investigated in three groups of college students: one with paranoid tendencies, one with depressive tendencies, and one normal control group. The students in each category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groups. One group was given positive feedback regarding a disguised IQ test and the other was given negative feedback about the test. The hypothesis was that the paranoid subjects in the group whose self-concept was threatened (i.e., that was given negative feedback) would show more attention bias to words related to self than subjects from the control group, would attribute failure in the task to a partner, and would rate themselves positively in self-descriptive words. Another hypothesis of this study was that the paranoid members of the group in which self-concept was not threatened but given positive feedback would show these cognitive biases much les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upported these hypotheses. These findings are interpreted as consistent with the recent theories that paranoia functions as a defense against low self-esteem and that the paranoid have underlying weak self-concepts and are very sensitive to threats to self. When under threat, they show so external attributional bias that they may preserve their positive self-concept.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aranoia, Self-concept, Attentional Bias Relevant to Self, External Attributional Bias